

한전공대, 영어론 'KENTECH'

〈켄텍·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특화 육성 지향 직관적 표현 내년 3월 개교...다음달 학생 입학전형 발표 후 수시모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영문 교명이 'KENTECH(켄텍)'으로 정해졌다.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다음달 학생 모집을 위한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을 벌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교법인(이사장 김종갑)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영문 교명을 'KENTECH(켄텍)'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ENTECH은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를 줄인 말이다.

K(orea)+EN(ergy)+TECH(nology)의 조합어로,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한전공대설립단 측은 "기억하거나 발음하기에 쉽고 대학 상징성이 우수해 앞으로 대학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공대는 이 영문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며, 대학 UI(University Identity·대학 이미지)는 내부 선택 과정을 거쳐 다음달 확정돼 발표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문 교명 선정'과 '학교법인 예결산', '정관 개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법인 정관은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 목적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됐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 개

교가 공식화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학 명칭은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뀌고 사립학교 법인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5월 둘째 주 열릴 예정이다.

학교법인은 개교 준비를 위해 핵심 시설 확보를 위한 캠퍼스 건설과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 학생 모집을 위한 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빛가람동 부영플랫폼 및 인근 농경지 120만㎡에 설립한다. 대학부지는 40만㎡(교사 14만㎡),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는 80만㎡이다.

2025년 전학년 편제 완성 때 대학원생은 600명, 학부생은 4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학과 단일 학부로, 교수와 교직원 등 100명 채용을 계획한다.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홍수기 대비 소통회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관리단(단장 박용순)은 22일 홍수기 보 영향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광주시, 전남도, 담양군 등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장성담 등 4대호, 영산강하굿둑 등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 제공>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광주상의, 성명 발표

광주지역 경제계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자 광주상공회의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교통 인프라 부족은 영호남 화합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와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동서간 화합의 상징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가 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달빛내륙철도는 동서간 지역을 경유해 철도가 지나가는 영호남 10개 지자체 970만명의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로 낙후된 지역발전과 동서화합, 국가균형 발전에 촉매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처음 소개된 이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추가 검토사업에만 반영되는 등 22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사항으로 약속한 이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2017년부터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정부 부처와 각 정당에 건의했으며, 달빛내륙철도건설추진협의회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시 빛가람동 120만㎡ 규모 부지에 설립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한국전력 제공>

'길어진 집콕' 냉동냉장 식품 매출 32.6% ↑

광주 이마트 '피코크' 제품 인기

광주 4개 이마트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 까지 이들 매장 냉동냉장 식품 매출이 1년 전보다 32.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냉동분식 식품은 29.3%, 냉동·냉장 디저트 매출은 34.2% 올랐다.

자체적으로 내놓은 '피코크' 간식류도 '두 자릿수' 넘는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피코크 냉장면은 230.4%, 냉동 디저트는 205.4%, 냉동분식은 29.3% 매출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피코크 안주류 매출도 33.9% 증가했다.

피코크막창·곱창(77.9%), 닭발(41.9%), 순대·족발(34.5%) 등도 매출이 크게 올랐다.

올해는 피코크 안주류 매출 4위였던 막창이 소시지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집콕이 증가하면서 식사류 이외 간식거리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다양하고 간편한 간식거리를 냉동식품과 디저트로 쉽게 접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마트 '지구의 날' 맞아

무라벨 대추방울토마토 판매

롯데마트는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비닐 인쇄지(라벨)를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를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품은 비닐 폐기량을 줄이고, 분리수거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됐다.

산지와 농가 정보, 중량 등 상품 정보는 매장 내 고지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매장 인근에서 새벽에 수확한 대추방울토마토를 당일 오후 3시에 신선한 상태로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1kg에 7980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신입·경력직 경쟁률 54.9대 1

신입 19·경력 4명 선발에 1263명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20일까지 벌인 신입·경력직 채용 서류전형에 1263명의 지원자가 몰려 5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류 접수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정규직 채용 경쟁률은 171대 1이었다.

사학연금 측은 "이번 경쟁률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정성평가에 공단 주요사업 및 이슈를 반영한 자기소개서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입직원 채용인원은 19명으로,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20배수를 선발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이달 30일에 발표되며, 이후 필기와 두 차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경력직원 채용인원은 4명으로, 서류전형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달 13일에 발표한다.

5월20일에 실시하는 한차례 면접으로 최종 선발 예정이다. 최종 신입·경력직 합격자는 오는 7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절차에는 학력이나 출신학교, 성별에 구애 받지 않는 직무중심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사학연금은 지난 2019년 기준 지역 의무채용 대상 15명 가운데 33.3%에 달하는 5명을 채용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